

사교육 과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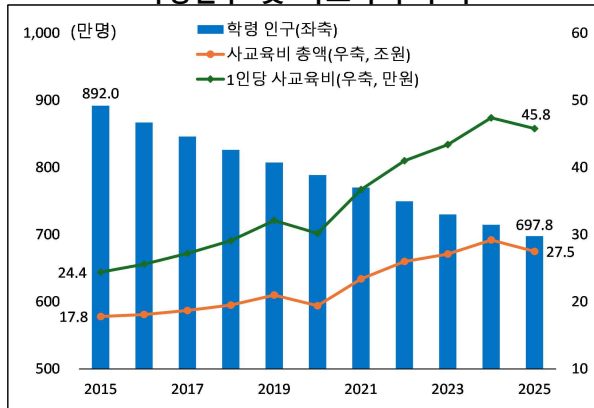
미래전략개발부 경제조사팀
류용욱 (yoryu11@kdb.co.kr)

- ◆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됐던 사교육 과열과 의대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손실을 야기하여 성장을 저해
- ◆ 의대 쏠림 완화를 위해 이공계 및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을 재수립하는 동시에, 교육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

□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장 비대화와 의대 쏠림 가속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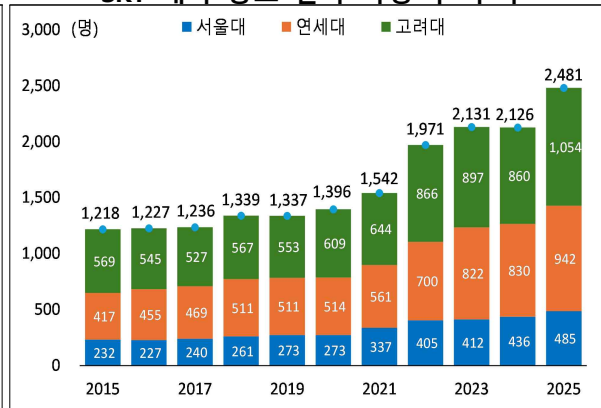
-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확대되는 추세
 -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 돌봄 확대 등으로 역대 최고치인 2024년(29.2조원) 보다는 감소한 27.5조원을 기록하였으나, 지난 10년간 54% 증가
 - 1인당 사교육비는 물가상승률*을 감안하더라도 10년간 53% 증가하였으며, 사교육 과열이 서울 지역에 집중(서울 66.3만원, 중소도시 44.8만원, 읍면지역 32.5만원)
 - *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22.9% 상승
- 한편,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며 일부 학원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을 운영하는 등 의대 쏠림은 사교육 시장 비대화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
 - 의대 진학 사유 등으로 대학 중도 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,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이탈 및 재수생 양산*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**되어 국가적 손실 야기
 - * 한국은행 "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(정종우 외, '24.8)"에 따르면, 서울대 입학생 중 재수생 이상의 비중이 2013년 14.9%에서 2024년 26.9%로 증가
 - **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평균 진입 연령은 약 30세, 미국, 일본, 유럽 주요국 등은 대체로 20대 중반

학령인구 및 사교육비 추이



자료 : 국가데이터처

SKY 대학 중도 탈락 학생 수 추이



자료 : 대학알리미

□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과 의대 쏠림 현상은 저출산·저성장, 소비 활력 저하,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유발

○ 사교육비 부담 확대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*이 지속적으로 하락

* OECD가 2021년에 발표한 세계 장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에는 $\Delta 0.03\%$ 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

- 한국경제인협회의 연구에 따르면, 2015~2022년 사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감소분(0.461명)의 약 26%인 0.120명이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*

* 한국경제인협회(23.12), "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"에서 인용

- 한국은행이 실시한 출산 관련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 중 출산 지연 또는 포기에 대한 주된 이유로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선택한 비중이 44%를 차지*

* 황인도 외(23.11), "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: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, 영향, 대책"에서 인용

○ 가계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이 사교육비로 지출됨에 따라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경기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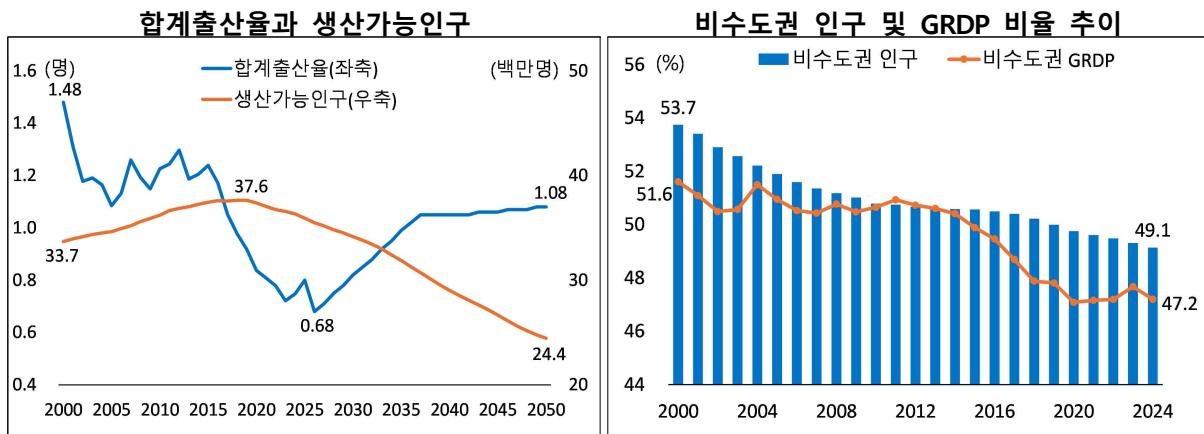
- 2025년 미혼자녀 수가 2인 이상인 가계의 경우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비(14.1%)보다 높은 16.2%로 최대 지출 항목*

* 미혼자녀 수에 따른 교육비 지출 비중의 현격한 차이(0명 1.7%, 1명 7.4%, 2명 이상 16.2%)

- 한편,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로 부모 세대의 노후 자산 형성이 미흡해지며, 국가 복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

○ 또한, 사교육 열풍으로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서울 지역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및 비수도권 경제 붕괴 가속화

-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(GRDP)은 2015년부터 50%를 하회하고 있으며, 비수도권 인구도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이후 50%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



자료 : 국가데이터처(2026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데이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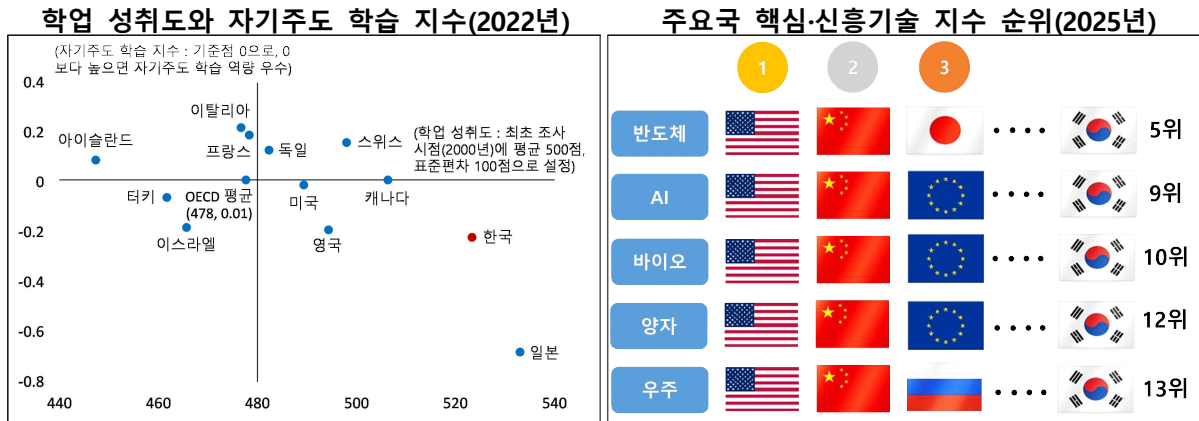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가데이터처

□ 아울러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인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적 인적 자원 손실을 야기함에 따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

- 사교육 확대는 학습의 “양적 팽창”을 가져왔으나, 비판적 사고와 자기 주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“질적 학업 역량”의 퇴보를 초래
 - OECD의 2022년 PISA*에 따르면, 한국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으나, 자기주도 학습 지수는 최하위권

*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(국제 학업성취도 평가), 3~4년에 한 번 실시

- 또한, AI 대전환 시대에 국가 성장을 이끌어야 할 미래의 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 등 전문직에 치중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잠식
 -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, 우리나라는 반도체(5위)를 제외하고 모두 10위권 안팎으로 핵심·신흥기술 지수 순위가 주요국 대비 열위한 상황



자료 : OECD

자료 :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

□ 사교육 과열과 의대 쏠림 완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을 재수립하는 한편, 교육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

- 이공계 및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연봉 확대,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 등 의사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대 쏠림 완화 필요
- 교육과 직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더욱 중요
 - 무분별한 사교육을 통한 입시 경쟁이 오히려 자녀 세대들의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,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*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 필요
 - * 영어교육 전문기업 '윤선생'이 2025년 5월 실시한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, 초등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녀 직업 1위는 의사·변호사로, 응답률 45.1%를 차지
 - 다수의 전문직 업무를 AI가 대체하게 될 미래 시대에는 창의성, 네트워킹 능력 등 AI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능력 구축이 더 큰 자산이라는 인식 필요